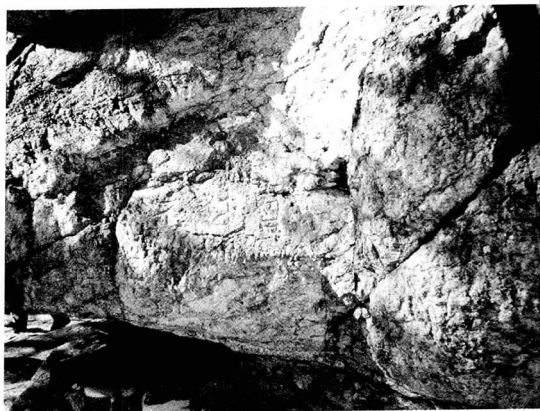


자연 암 (自然岩) 훼손 유감(遺憾)



오 판 용 < 본회 이사 >

인간은 자기 이름을 오래도록 남기려는 욕구의 발상을 어디 서든지 하는 모양이다. 일제시절 사

할린의 위험한 탄광이나 폭격이 격심한 대도시의 방공호 공사에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죽음의 공포와 기아속에서 혼신의 힘을 담아 담벽이나 갯도 속에 남겨둔 한 많은 글과 자기 이름석자 등을 보면 무언가 절규한 것 같아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명산을 돌아 보면 옛 문인·묵객들이 절경을 경탄한 짧은 시구를 명필로 음각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명필들은 그 풍경을 해치지 않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써 놓았고 문장 또한 유창하기에 어떤 의미에선 경관을 더욱 신비스럽고 외경(畏敬)스럽게 해주는 감이 없지 않다. 근래에 와서는 그러한 금석학적 가치나 문학·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각이나 각자(刻字)는 볼 수 없고 보기 흉한 서체(書體)로 자신의 이름 석자만을 아무데나 새겨놓아 신비스럽게 생긴 자연문화

유산감인 암석을 더럽힌 곳이 많아 원상회복작업을 자진해서 하도록 권하고 싶다. 요즘에는 훼손된 암석의 광질(鑛質)과 같은 破石가루를 강력 한 특수접착제와 혼합해서 흔적이 없도록 하는 기법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런 기법을 보유한 분들의 신고를 받아 문화재관리당국은 물론 국립공원을 비롯한 각급 자연공원과 명산·관광지 및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는 당국은 이분들 이름·주소를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가책을 받는 낙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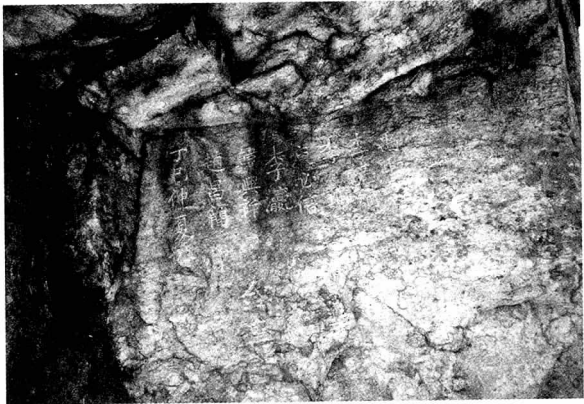
들이 그분들을 초빙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우게 하는 한편 자연보호애호자의 협력을 받아 원상복구하는데 모두가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일례로는 치악산(雉岳山) 국립공원의 유명한 입석대(立石臺)의 경우를 본다.

지질학자(고의장 박사)에 의하면 치악산의 지질은 화성암류 생성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에 생성된 시대미상의 퇴적원(堆積源)을 기초로 한 변성암류로서 흑운모편마암류와 금대리(金垜理) 편암류가 가장 넓게 분포된 것이 특징이라 한다. 입석사쪽 등산로를 따라 약 1km 지점 좌측 산자락에 우뚝 솟은 입석대(立石臺)는 멀리서 보면 웅장한 기념비처럼 보인다. 탐방객과 입석사 참배객들이 신비스러운 입석대에 가셔도 축원을 하는 이가 많아 보호책을 두르고 철계단을 만들어 놓고 있다. 흑운모편마암류와 금대리편암류가 가장 넓게 분포되었다는 이 치악산 한 모퉁이에 신비스러운 자태로 우뚝 서 있는 자연문화유산이 될만한 입석대의 광질은 다양했다.



비석처럼 생긴 자연석덩어리는 거대한 바위산이 생성작용시 모두 떨어져 나간 뒤에 남은 듯 밀뿌리쪽은 아래쪽 바위와 맞붙어 있어 얼핏 돌출한듯 보이기도 하다.



한 무리(9명)의 이름을 석질이 오색찬란한 면에다 해서체(楷書體)로 나란히 음각한 것을 보니 아마도 백년도 훨씬 넘은듯 어려운 이름도 있어 역사적 인물이 아닌지 궁금하게 해준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 이름이 크고 작게 이곳 저곳 보기 흉하게 파여져있으며 숫자나 로

마체로 아무데나 새긴것도 있어 흉칙하기 짝이 없다. 필자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대로 해서체의 이름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 적어본다.

閔○○, 金○○, 愚聖○, 李彥渭,
李 □, 李必信, 李 □, 韓興祚, 趙
昌簡, 丁巳, 仲夏. ≡

